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총력'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 등 전문가 8명 자문위원 위촉

노관규 시장 "강점 체계적 정리…유치 실행력 등 강화"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이루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관석준 성균관대 교수, 김준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이순형 동신대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

교수, 조성운 순천대 교수, 전영준 비즈엔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해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

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외부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노관규 순천시장이 최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미지답 사천포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 팔 걷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에 팔을 걷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와 함께 최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

사천시와 우주항공산업 비전 구체화 등 논의

인구 구조 개선·지속 가능 발전 전환점 기대

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 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시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경상국립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군은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험시설, 민간 전용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 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곡성, 복지사각지대 위기기구 전수조사

내달 13일까지 복지 안전망 강화

곡성군은 겨울철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를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1442명을 대상으로 정밀 전수조사에 착수해 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발굴은 보건복지부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체·단수·사회 보험료 청탁 등 위기 징후가 감지된 가구를 선별한다.

군은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11개읍·면·마을별 복지팀과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민관 협력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위기기구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즉각 연계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생계가 막막한 긴급 위기 상황의 경우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연계해 낭비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정서적 지지 서비스 등 다각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시기다"며 "군민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내일 개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43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10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약수제는 시민의 안녕과 고로쇠 수액의 풍성한 채취와 명품 고로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항고가 제례를 주관한 행사는 국악·민요 공연, 12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

수제, 약수제례, 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행사장 인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제례 전 과정을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로쇠 시음 부스를 운영, 신선한 고로쇠 수액을 마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백운산 약수제는 1980년대 초부터 경

험을 전후해 개최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

후 온난화로 채취 시기가 앞당겨져 2월에 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로쇠 수액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됐으며, 최근에는 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모습.

장흥, 스마트농업 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삼산간척지에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삼산간척지(관산을 삼산리·신동리 일원)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군은 염해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된 확장형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은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흥군이 사전에 준비해 온 단계별 조성 전략과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결과다"며 "삼산간척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을 조성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